

라오스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과 한국·라오스 외교관계

이요한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주요 내용

- 2016년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3차 아세안지역포럼(ARF)가 개최되었으며 27개 회원국이 참여하였음.
- 금번 ARF는 북핵, 사드배치 등 한반도 이슈와 남중국해 분쟁 등 첨예한 현안으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음.
- 올해 9월 예정된 ASEAN 정상회담 및 ASEAN+3(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라오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대 라오스 외교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 이슈 현황

☒ 제 23차 아세안지역포럼

- 아세안(ASEAN)의 주도로 1994년 출범한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아시아 유일의 공식적인 안보회의로서 2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 ARF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그 규모 면에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아시아 역내회의임.
 - 현재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한국·미국·중국과의 접촉 여부와 관계 설정에 대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음.
- 2016년 7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7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23차 ARF 회의가 열리게 되었음.
 - 금번 ARF에서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테러리즘, 초국경범죄, 전염질병, 불법이민, 인신매매와 같은 일반적인 이슈와 더불어 한반도 이슈와 남중국해 문제가 다루어짐.
 -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한국·미국·중국과의 접촉 여부와 관계 설정에 대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음.

그림 1. 제 23차 아세안지역포럼, 라오스 비엔티안



자료 : ASEAN 홈페이지(www.asean.org)

- ARF회의 이후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
 -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ARF 공동성명에서 나타났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ASEAN 회원국

간 분열이 비엔티안 회의에서도 재연되었음.

- ASEAN 내 친중국 국가 중 하나인 라오스 또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라오스가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미국·일본·호주 등의 강력한 항의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함.

2 원인 분석

☐ 북핵, 사드배치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

- 2016년 ARF가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전통적인 북핵이슈 문제 이외에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었기 때문임
 - 폐막일인 7월 26일 의장 성명을 채택하지 못하고 하루 늦게(27일) 발표한 ARF 의장성명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음
 -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일부 국가의 동조로 한국 외교당국이 한 때 긴장하기도 했으나 최종 의장성명에서 '사드'이슈는 언급되지 않음
- ARF는 한반도 이슈에 대한 한국 외교의 새로운 시험대
 - 북핵 이슈의 채택과 사드 이슈의 배제는 한국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ARF 회의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는 평가임
 - 북핵 이슈는 전년도 ARF의장성명에 비해 북한을 향한 비판적 논조가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중국의 왕이 부장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회의 기간 내내 친밀감을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 공식 외교장관회담을 가짐
 - 왕이 부장은 반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에게는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함
 - 이번 ARF는 한국과 미국 대(對) 북한과 중국의 외교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신냉전(新冷戰)의 재현과 한반도 기존의 대북 제재 구도에 균열이 발생함
- 남중국해 분쟁은 AFR의 단골 메뉴였으나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영해를 주장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필리핀의 주장이 승소를 거두며 이에 대한 중국과 ASEAN의 반응이 주목되었음
 - 중국은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존중"이라는 표현이 의장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는데 성공하여 '외교적 판정승'을 거두었다는 평가이며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의 양자 문제"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함

-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친중국적인 태도와 ASEAN 내 분열로 ARF를 통한 대 중국 견제는 실패로 돌아갔음

3 **전망과 시사점**

한국·라오스 외교 관계 현안과 과제

- ARF의 의장국인 라오스의 역할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전개되었음
 - 한국의 2015년 12월 황교안 총리의 방문 당시 대규모의 원조를 약속하면서 통상 전 총리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공식적 표명을 이끌어낸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 선언문에 ‘북핵’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을 하는 것에 라오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라오스는 세계적으로 몇 안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념적 동지국가인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남북한에 대해서는 ‘등거리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음
- 2016년 4월에 이루어진 신임 대통령과 총리의 취임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요구됨
 - 신임 분냥 보라쉴 대통령은 보수파로서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취임 직후인 6월 8일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라오스로 파견하여 보라쉴 대통령과 면담함
 - 북한은 라오스와의 외교적 친분을 바탕으로 ARF 의장성명 발표 후 다음날까지 현지에 체류하며 북한 핵 관련 문안을 수정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가졌음
 - 북한의 이러한 노력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라오스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접근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됨
- 라오스에 대한 주요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라오스 외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라오스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1월), 중국의 왕이부장(4월), 일본의 기시다외상(5월)이 차례로 방문하여 신정부 최고위층과 환담하였음
 - 라오스가 올해 ASEAN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동남아 역학관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어 태국과 베트남 또한 대 라오스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이번 ARF회의에 윤병세 외교장관이 참여한 것 이외에 라오스의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
 - 2016년 9월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ASEAN 및 ASEAN+3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대 라오스 외

교현안과 정책들을 정교하게 수립하여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EMERiCs

출처

국민일보. 2016년 7월 12일

노컷뉴스. 2016년 7월 27일

동아일보. 2016년 7월 25일

아시아경제. 2016년 7월 21일

연합뉴스. 2015년 12월 14일

연합뉴스. 2016년 6월 8일

연합뉴스TV. 2016년 8월 7일

중앙일보. 2016년 7월 28일

헤럴드경제. 2016년 7월 28일

ASEAN Regional Forum. 2016. *Chairman's Statement of the 23rd ASEAN Regional Forum*. Vientiane, Lao PDR. 7. 26.

Diplomat, 2016. "No ASEAN Consensus on the South China Sea" 7. 21

Nikkei. 2016. "Consensus eludes ASEAN in Laos"

Vientiane Times. 2015. "Laos, Republic of Korea enhance ties" 12. 15

Vientiane Times. 2016. "ASEAN foreign ministers reaffirm push to realize 2025 vision" 7.26

Vientiane Times. 2016. "ASEAN, Chinese ministers agree to abide by international marine law" 7.27.

Wall Street Journal. 2016. "South China Sea Spat Looms Over ASEAN Meetings in Laos" 7.21

Word Press. 2016. "ASEAN Chair Laos faces a serious test in Diplomacy" 7.20